

건협 강원도회,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조정 요청

# 총 '6건'에 공사규모 700억 육박

원주천댐 건설공사 436억 최대  
지역사 참여기회 확대 등 앞장

발주처에 향후 시설공사 발주시  
다툼 예상, 판단 모호한 경우  
협회와 사전 협의 협조도 요청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지난해 700억 원에 육박하는 도내 주요 발주처 시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회의 적극적인 조정 요청에 입찰 기간 내 종합건설업으로 참가자격이 바뀐 발주공사도 확인됐다. 또한 발주처에서 향후 입찰참가 조건을 변경하기로 약속하는 등 그동안 일부 시설공사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발주처 입찰 과정에 변화가 있었다.

25일 건협 강원도회가 제61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건협 강원도회가 도내 시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조

건협 강원도회의 지난해 도내 주요 발주처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조정 현황

요청유형	공사금액 (만원)	발주처
전문업종 오류 발주공사 종합공사업으로 정정	11,600	태백시
입찰참가자격 적정검토 협조	68,200	인제군 상하수도 사업소
지역제한 조건포함 및 실적제한 완화 협조	470,600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부문
시공책임형 CM 입찰의 도내업체 참여기회 확대 협조	4,369,300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완화	874,400	삼척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완화	1,134,700	동해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총 금액	6,928,800	

정을 요청한 건수는 6건, 총 공사금액은 6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회는 도내 시설공사 가운데 입찰 참가자격 기준이 과도하거나 법률 해석 오류로 인해 잘못 발주된 입찰 공고를 정정하도록 발주처에 요청했다. 특히 앞으로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에 다툼이 예상되거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협회와 사전 협의해 줄 것을 발주처에 협조 요청했다.

금액별로 원주천댐 건설공사가 436억 9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지난해 10월 도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관리처를 대상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CM) 입찰의 도내업체 참여기회 확대 협조를 요청했다. 도회가 확대 협조를 요청한 이유는 이사업이 CM 방식 시범사업 대상으로 입찰방법이 일반입찰 방식과 달랐기 때문이다.

CM은 일반입찰과 일괄입찰(턴키)의 중간 단계 형식의 입찰 방법이다. 이에 도회는 도내 업체 공동도급 참여 없이 대기업 단독 입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보안을 요청했다.

도회 요청에 한수원에서선 종합심사낙찰

제를 기본으로 낙찰자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중심제보다 지역업체 참여 시 가산점을 확대 적용하는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공고했다.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의 완화도 요청했다. 도회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이 발주한 113억원 규모의 저온물류창고 공사와 관련해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건설사는 최근 10년 이내 창고시설 중 '자동입출고 제어 시스템(물류 자동화시설)'이 포함된 '냉동, 냉장창고'로서 연면적 1만155㎡ 이상 건축공사 준공실적이 있어야 했다.

이후 도회 건의에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연면적 1만155㎡ 이상 냉동창고시설 건축공사 준공실적으로 완화됐다.

전문업종으로 잘못 발주된 공사도 종합공사업으로 정정 공고됐다. 지난해 5월 11일 입찰한 1억1600만원 규모의 서학로 도로개설공사에서 태백시는 상하수도공사업으로 공고를 냈지만, 도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공고를 변경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